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 교수·미술평론가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 다뉴브의 하류에 자리한 인구 190만의 고도 비엔나. 트램과 지하철 그리고 버스노선이 기본이고 공용 자전거와 바이크가 있어 교통이 편리한 도시다.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링 거리를 따라 세워진 다양한 양식의 건축들은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의 하나로 부르기에 손색없다. 괴테와 모차르트 동상은 이곳을 살다 간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있다. 도심 전체에 흩어진 수많은 뮤지엄들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그 중

비엔나의 도시 브랜드, 클림트의 ‘키스’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에 자리한 자연사박물관과 미술사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꿈과 영예를 품은 이 도시의 자랑거리다. 하지만 비엔나에 향기를 퍼트리는 장소는 따로 있다. 벨베데레(Belvedere) 궁전이다.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의 벨베데레는 왕궁을 개조해 만든 복합건물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미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궁전이 향기의 진원인 이유는 바로 귀스타브 클림트의 명작 ‘키스(The Kiss)’가 이곳에 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와 에밀의 초상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루브르의 모나리자 이상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다. 이 작품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림의 주인공이 비엔나를 살았던 인물들이자, 오스트리아의 혁신적 근대 미술 사조로서 유겐트 스타일(영 스타일)의

대표작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작품이 매혹적인 것은 몽환적이며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랑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서 개인사를 넘어 비엔나의 역사와 시대를 관통해 온 보편적 삶의 단면을 본다. 클림트의 ‘키스’는 원근이 없는 텅 빈 공간을 배경으로 주인공과 그의 소울 메이트 에밀의 ‘영속적인 사랑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일체가 된 두 몸은 금빛의 강렬한 색면과 섬세한 디테일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클림트가 일구어낸 저부조의 새로운 채색 기법은 화면에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욕망의 시선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위험이 따르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일까. 꽃밭의 끝이자 ‘절벽의 경계’에 인물을 배치시킨 구도는 이 작품의 비밀을 암시한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인간사

의 메시지다. 클림트는 이 비밀을 또 하나의 작품 ‘유디트(Judith)’에서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팜파탈(femme fatale),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여자를 말한다. 입술을 살짝 벌리고 뒤로 젖힌 고개에 시선을 아래로 드리운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은 매혹적이다. 그러나 여인의 오른손에 들린 홀로페르네스(Holofernes)의 머리에 이르러 그림 속 메시지는 반전을 이룬다. 클림트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한 점의 그림이 이렇게 도시를 빛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작품을 가지고 있을까. 지역의 장소성과 시대성을 품으면서도 인간 심리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예술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사설

‘해녀의 전당’ 재검토 의견 새겨들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녀의 전당’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녀의 전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총 180억원(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을 투입해 기존 해녀박물관 부지내에 지하1층·지상3층(건축면적 1780㎡, 연면적 4780㎡)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국내외에 분포하고 있는 한국해녀들의 삶을 모든 종합전시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해녀의 전당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2016년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

승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기존 해녀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녀박물관 시설 활용 등 연계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벌써 두번째 ‘재검토’ 결정입니다. 해녀공동체 어업을 한국 신여성 해양문화의 모델로 제시해 세계 문화로 발돋움 시킨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 사업으로 남겨둬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해녀박물관을 활용하면서 콘텐츠 추가 확보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찍을 때입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고 생색내기 할 때가 아닙니다. 재정투자심사 위원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자체를 보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부부의 참변,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런 날벼락도 없습니다. 도내 70대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중문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하며 김모(75)씨 부부가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날 숨진 김씨 부부는 중문해수욕장에서 10여 년 간 관광객들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사고 당일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해

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김씨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번 노부부의 참변도 음주운전이 빛은 비극임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폐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의 고질병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더 강한 충격요법을 써야 제대로 먹혀들지 걱정입니다.

열린마당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 체험 후기



김수환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청년인턴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됐다. 아직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한 알찬 시간이었다. 요금관리부에서 인턴을 하는 요즘은 ‘어떤 업무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체험형 인턴이라는 제도는 실무

회상으로 응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더 친절하고,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꼼꼼하게 숙지했다.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 연속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기까지는 이러한 서비스 정신이 기초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소 ‘공기업’하면 떠올리는 딱딱하거나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내가 속한 요금관리부 직원들끼리도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 이에 한편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려는 유연한 기업임을 느꼈다. 인턴 생활을 통해 국가 산업의 근간이며 동시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기와 이를 제공

뉴스-in

원지사 “도시 재생, 청년들의 관심 필요”

“제주만의 특성 살려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해 심화시켜나가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지난 22일 진행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제주시 도심올레 도보여행’에서 원 지사는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제주만의 특성을 살려야하기에 젊은 건축가와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 또한 원도심과 제주신항 조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고민하고 있는 과제”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제주시, 시민원탁회의 개최

○…제주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제3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해 눈길. 24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관광객 쓰레기 문제

와 일회용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토론으로 진행. 제주시 관계자는 “정책제안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미술대전 시상식 불참 뒷말

○…지난 24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제주도미술대전과 제주시예문인화대전 시상식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들이 찾은 반면 도미술대전 대상작을 매입하는 제주도 측은 설명한 분위기. 미술·서예문인화대전 분리 이후 처음 시상식을 통합해 치렀지만 제주도에서는 지사·부지사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국·과장까지 체육대회, 휴가 등을 이유로 불참. 주최 측인 제주미술협회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참석했는데 이번엔 다들 사정이 생겨 못왔다”고 해명. 전선희기자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이창윤(前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 아버지 **고부이공 처근(고부이씨 대동하장, 중등교장·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5일 04시 3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6일(월)
▶ 발인일시: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소(2층)
▶ 장 지: 제주양지공원·서귀포추모공원

부인 오선화
아들 이창윤 며느리 권명숙
장화(敬)
창권 성민화
창걸 임미경
딸 이창옥 사위 강승희(敬)
창순 성기철
손자 이승호

※ 연락처 : 이창윤 010-9661-1954
이창권 010-8458-2848
이창걸 010-3748-3520
이창옥 010-5283-8273
이창순 010-9464-3011
이승호 010-2397-2917
※ 조화는 받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회순(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남 편 박창호	며느리 고애숙
아 들 박형진	지흥 정원희
	재형 강미준
딸 박정미	사 위 최정주
영숙	김선봉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근보(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아 들 김일중	며느리 강시은
맹중 김경자	
성중 유희승	
신중 김은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운서(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아 들 고인석	며느리 이성심
인국	현정희
인호	강경자
	이채연
	사 위 김세준

제주감귤농협 직원상조회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임철재(1968. 4. 26생)
·최후주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6길 22(한림리)

상기자는 2018년 10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8년 8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19노단4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의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 처 : 제주시 고전길 2-6, 201호 (이도일동, 부성주택)

2019년 8월 2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임지혁, 임지빈, 임은지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강태자(루치아·향년 6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남 편 양창남	
딸 양지연	
	지숙
사 위 어영환	
	고태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호남(향년 7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인 한지혜(현)	
아들 강석인	
딸 강준미(현)	사위 이광식
은경	
윤경	최경성
보경(현)	김형철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호열(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6일

아들 부성요	며느리 백은희
성훈	유현숙
성현	
부순옥	
재옥	
금옥	사위 한동열
희옥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국산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